



최근 안방극장에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내걸고 시청자의 시선을 잡아끄는 드라마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도 짙은 애정 표현부터 잔혹함 등 수위 높은 이야기가 넘쳐난다. 사진은 SBS '펜트하우스2'(왼쪽)와 tvN '마우스'의 한 장면.



사진출처 | SBS·tvN 방송 캡처

잔인하고 막나가도...웰메이드 드라마 통한다

제한적인 시청층 불구 인기 질주
막장 '펜트하우스' 30%대 시청률
'마우스', 잔혹하지만 개연성 공감

진한 애정 표현과 잔혹한 폭력은 물론
살해와 사체 유기까지.

최근 방영 중인 일부 드라마가 수위 높은 장면과 이야기로 '19금'(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자청하면서 방송가의 새로운 돌파구로 자리 잡을지 관심을 모은다. SBS '펜트하우스' 시즌2와 tvN '마우스' 등이다. 안방극장에서는 보기 드문 행보이다. 폭넓은 연령층 시청자가 들여다볼 수 있는 무대가 제한적인 시청층을 겨냥하면서도 시선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 "19금? 장르물의 불가피한 선택"

'펜트하우스' 시리즈는 사회적 차별이 빚어내는 갖은 폭력적 또는 비이성적 상황을 낳는 그대로의 자극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럼에도 30%대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시청자 호응을 얻고 있다. '막장'을 넘어 잔혹한 현실을 더욱 극적으로 그려내면서 논란의 범위를 넘나든다. 이승기 주연 '마우스' 역시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한 시신 훼손 장면 등을 노출하면서도 극적 긴장감을 유지하며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19금'을 표방하는 드라마는 대부분 스릴러 등 장르물을 표방하고 있다. '마우스'의 연출자 최준배 PD는 "사건에 대한 분노와 상상력을 연기자들의 연기와 결합해 극대화하고 싶었다"면서 '19금' 등급이 시청자의 감정이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의 높은 호응이 바탕이 된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야 집계에 따르면 '펜트하우스'의 경우 전체 시청률의 70%가량이 40대 이상 시청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젊은 시청자들이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과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새로운 드라마 소비 플랫폼으로 삼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이 안방극장의 시청 주도층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 "표현의 자유 확대 속 개연성의 스토리가 중요"

이 같은 '19금'식 표현 수위는 이미 '미드'(미국드라마)를 포함한 해외 시리즈물이 넘쳐나면서 표현 수위에 대한 수용자들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가능하다. 여기에 케이(K)드라마가 해외시

장에서 이전보다 비교적 높은 관심을 모으면서 더욱 폭넓은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표현상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OTT를 통한 전 세계 스토리 콘텐츠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영균 대중문화 평론가는 9일 "한국드라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위한 표현의 제한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가 포진한 안방극장의 '19금' 드라마의 표현 수위와 방식에 대한 공감 여부다. 최영균 평론가는 "개연성 있는 이야기 흐름을 기조점 삼아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흥행만을 노리는 무분별함은 도태시키는 방송사와 시청자 사이 합의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젊은이의 양지' 이지는 사망 타살 흔적 없어...부검 예정



이지은

1990년대 인기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 출연한 연기자 이지는(50)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지는은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지은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유족과 논의한 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지는은 아들이 군에 입대한 후 홀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994년 SBS '좋은 아침입니다'의 모델로 데뷔한 이지는은 그해 KBS 2TV 드라마 '느낌'에서 김민중 상대역을 맡으면서 얼굴을 처음 알렸다. 당시 이국적인 외모의 독특한 패션과 화장으로 화제를 모았고, 일본어에 능통해 일본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후 1995년 KBS 2TV '젊은이의 양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극중 남장 여자 캐릭터로 중성적인 매력을 뽐내며 하하라, 이종원, 배용준, 박상아, 전도연 등과 호흡을 맞췄다.

그해 영화 '금홍아 금홍아'로 청룡영화상과 대중상 신인상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다. 또 김기덕 감독의 영화 '파란 대문' 등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2000년 벤처사업가 이진성 씨와 결혼했고, 2004년 KBS 2TV '해신'을 끝으로 작품 활동을 중단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로제, 솔로 앨범 선주문 40만장 역대 최대



로제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이 선주문량 40만장을 돌파했다. 9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로제의 첫 싱글 'R'의 전 세계 선주문 수량이 40만장(8일 기준)을 넘겼다. 이는 예약 판매를 시작한지 4일만의 기록으로 국내 여성 솔로가수의 단일 앨범으로는 역대 최대 선주문량이다. YG는 "국내와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팬들이 예약 구매를 했다"고 설명하며 실물 앨범 출시일이 일주일 남은 만큼 주문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유노윤호 밤10시 넘겨 술자리...방역수칙 위반



유노윤호

그를 동반신기의 유노윤호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밤 10시를 넘겨 서울 음식점에 머무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를 넘어 자정까지 자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나리, 美 '제작자조합' 작품상 후보에



영화 '미나리'

영화 '미나리'가 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제작자조합(PGA)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PGA는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꼽힌다. '미나리'는 PGA가 발표한 작품상 후보작 '노매드랜드' '맹크' '원 나이트 인 마이애미' 등 총 10편에 포함됐다. 시상식은 25일 열린다. 영화는 8일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과 아역 배우상(엘린 김)을 추가해 모두 85개의 트로피를 안았다. 국내에서 3일 개봉해 이날 30만 관객을 돌파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원초적 본능'부터 '태극기 휘날리며'까지...명작 재개봉 열풍

화질·음질 향상시켜 다시 관객 만나
대형스크린 감성 살려...OTT와 차별

최근 1000만 흥행작 '신과함께' 시리즈가 재개봉했다. 역대 두 번째 1000만 영화인 2004년 작 '태극기 휘날리며'도 17년 만에 화질과 음질을 향상시켜 17일 다시 관객을 만난다. 다음날에는 1992년 사륜 스톤의 퇴폐적 아름다움이 빛난 '원초적 본능'도 새롭게 선보인다. 개봉 20주년을 맞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11일부터 첫 IMAX 상영 등 두터운 판타지 블록버스터 팬들을 설레게 한다.

이런 흐름은 예술적 감각으로 소수의 화제만 모으며 '명작'으로 꼽혔던 영화의 재개봉과는 달라 눈길을 모은다. '대박' 흥행작

이 다시 극장에 간판을 내거는 건 왜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첫 번째 배경으로 꼽힌다. 감염병 사태로 지난해 극장 관객이 전년보다 무려 70%나 줄어들면서 신작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이를 대체하는 재개봉작, 그 가운데에서도 흥행작을 통해 새로운 관객을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실제로 수치가 이를 보여준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개봉작 전체 관객은 전년보다 160.3% 증가한 201만명이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 133.6%나 늘어난 146억원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2월 말부터 적지 않은 영화가 개봉을 미루며 비운 자리를 재개봉작이 채운 셈이다.

또 중장년층의 발길도 잇단 재개봉의 또 다른 배경이다. 자료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4월 극장 주 관객층인 20~30대"가 주류를 이뤘지만 4월 이후 각종 기획전으로 "중장년층 관객에게까지 소구"했다고 분석했다.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차별화도 노린다. '리타렌트'와 '위대한 쇼맨' 등 음악·뮤지컬 영화나 4D 영화 등 대형 스크린만의 강점을 살리는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다. '위대한 쇼맨'의 경우 지난해 5월21일 재개봉해 6일 연속 흥행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올해 1월 '화양연화'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은 전체 흥행 4위와 함께 독립·예술영화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원초적 본능



태극기 휘날리며

OTT 자체 제작 '오리지널 콘텐츠' 대세...MZ세대 뜨거운 호응

(2030세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열풍이 거세다.

최근 새로운 영상콘텐츠 플랫폼으로 급부상한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자체 투자·제작하는 '오리지널' 작품을 늘려가고 있다. 넷플릭스 등 일부 OTT의 시도가 최근 티빙, 웨이브, 시즌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 시청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tvN·OCN 등 CJ ENM 계열 채널과 JTBC 콘텐츠를 공급하는 티빙은 첫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 '여고추리반'을 1월29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tvN '대탈출' 시리즈의 정종연 PD가 연출해 온라인상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티빙 황재정 콘텐츠사업국장은 9일 "공개 한 달여 만에 이용자가 작년 '대탈출3'의 VOD 수준을 뛰어넘었다. 티빙 유료 회원수도 증가했다"며



'여고추리반'



'가시리잇고'

"유튜브·트위터 등 MZ세대(2030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뚜렷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티빙은 20여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올해 내놓기로 했다. 26일 tvN '도깨비'를 쓴 김은숙 작가가 총괄 크리에이터로 참여한 '당신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에 이어 하반기에 송지호 주연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등 자체 제작 드라마를 선보인다. 공유·박보검 주연 영화 '서복'도 4월 15일 극장 개봉과 동시에 공개한다.

웨이브와 시즌 등도 경쟁에 가세한다. 웨이브는 작년 민규동·노덕 등 8명의 감독이 단편 드라마를 선보인 'SF8'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다. 지난달 26일부터 그룹 SF9의 찬희와 신인 박정연이 주연한 드라마 '가시리잇고'를 공

'대탈출' '여고추리반' 등 시리즈 기획
SF9 연장선 '가시리잇고' 등도 기대

개하고 있다. 아이돌 예능 포맷에 그쳤던 소재의 폭을 넓혀가는 시도로 보인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해외 OTT 플랫폼도 올해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콘텐츠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다양한 포맷과 소재를 포괄하는 무대에 대한 제작현장의 기대감도 나온다. '여고추리반' 정종연 PD는 "기존에는 캐스팅 기준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인지도였다면, OTT로 무대를 옮기면서 신선한 출연자 조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사에 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드라마 제작사 등은 우려의 시선도 감추지 못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작사 관계자는 "탄탄한 자본력과 재정 플랫폼을 갖춘 거대 OTT 기업과 콘텐츠 경쟁을 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